

신한은행 '제27회 신한환경사진공모전' 실시

신한은행이 11월 15일까지 '제27회 신한환경사진공모전'을 진행한다.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환경지향 사회공헌활동이다.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환경사진을 촬영해 개인 SNS에 #2020신한환경사진공모전 해시태그와 함께 접수 가능하다. 12월 중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을 진행한다. 정영욱 기자



이건희 회장 오늘 영결식…“간소하게 진행”

문화·체육계 “한국인 자신감 준 큰 어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위로 전해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고인 추모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빈소 찾아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장례식장이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는 27일에도 각계의 발길이 이어졌다.

문화·체육계 인사들도 빈소를 찾아 “문화와 체육 쪽에도 많은 공헌을 하셨다”며 고마움과 함께 안타까움을 표했다. 체육계를 대표해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유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 회장은 “고인께서는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다. 광주우 아시안게임, 런던 올림픽 때 제가 모신 바 있다”며 “IO C에도 공헌한 바가 크셨다. 직접 가서 상주님들께 애도의 뜻을 전해달라는 부



27일에도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에는 각계각층 인사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정운찬 KBO총재, 허창수 전경련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부터).

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우리 사회와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해 계셨어야 했는데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건희 회장은 생전 대한테슬라협회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활동했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도 결정적 역

할을 하는 등 스포츠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제40대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KBO총재도 조문했다.

문화계에선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피아니스트 백건우·조성진이 빈소를 찾았다. 2011년 호암상에서 예술상을 수

상한 정경화는 “이건희 회장은 이 나라에 자신감을 주셨다. 해외 어디에 나가서도 ‘내가 한국인이다’ 이런 자신감”이라며 “홍라희 전 관장이 많이 도와줬고 음악으로도 많이 통한다”고 말했다.

재계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다. 오전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구 회장은 “우리 나라 첨단 산업을 크게 발전시킨 위대한 기업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빈소를 다녀가, 삼성을 포함하는 국내 ‘4대 그룹’의 젊은 총수들이 모두 조문을 했다. 오후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허인 국민은행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빈소를 찾았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V 콘셉트카 '45'(오른쪽)와 어린이 전동차. 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EV 콘셉트카 45 디자인 활용했어요”

현대차, 어린이 전동차에 감정 인식 기술 적용 미래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의 가능성 제시

현대자동차그룹이 EV 콘셉트카 '45' 디자인을 활용해 제작한 어린이 전동차의 이미지와 제작 과정 영상을 27일 최초로 공개했다. 어린이 전동차의 헤드램프와 테일램프를 구성하는 ‘파라메트릭 픽셀’은 EV 콘셉트카 '45'의 핵심 디자인 요소다. 컬러는 어린이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부드럽고 온화한 분위기의 하늘색과 주황색 등 파스텔 톤으로 디자인됐다.

●감정 인식 차량 컨트롤 기술 적용

어린이용 전동차는 현대차그룹 연구개발본부가 연구 중인 감정 인식 차량 컨트롤(Emotion Adaptive Vehicle Control)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눈길을 끈다.

감정 인식 차량 컨트롤 기술은 미래 모빌리티 및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적극 활용될 차세대 기술로, 운전자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감 확보에 도움을 준다. 특히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웰스 케어 기술과 연계돼 차세대 안전 기술로도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어린이 전동차에 적용된 감정 인식 기술은 운전석 앞에 달린 카메라가 어린이의 얼굴 표정을 기록해 감정을 파악한다. 에어 포켓이 적용된 안전벨트는 몸을 감싸 안아 어린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벨트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심박수와 호흡을 측정한다.

어린이 전동차의 상체 제원은 전장 1380mm, 전폭 810mm, 전고 820mm다. 미취학 어린이에게 알맞게 설계된 아담한 사이즈이며, 연비는 “아이들이 행복할수록 높아짐”으로 표기되어 있어 향후 공개될 영상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개발한 어린이 전동차는 단순히 어린이가 타고 즐기는 장난감의 역할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회로 활용될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휴머니티를 위한 진보’를 실현하는 지능형 모빌리티 서비스의 가능성을 영상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KB국민은행 ‘우수기업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KB국민은행이 11월 2~13일 KB굿잡 홈페이지와 앱에서 ‘2020 제2차 KB굿잡 우수기업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KB굿잡은 구직자의 고용활성화와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연결 프로젝트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업종별 채용트렌드, 동영상 취업강좌, 취업컨설팅, 화상면접시스템 등을 도입해 취업 과정을 지원한다. 참가기업에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는다.

정영욱 기자

아프리카TV, ‘2020 eKLEAGUE’ 독점 생중계

아프리카TV는 아프리카TV가 주관하고 한국e스포츠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식 e스포츠 대회인 ‘2020 eKLEAGUE(이하 eK리그)’의 본선과 결선 경기를 독점 생중계한다고 27일 밝혔다. eK리그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공식 인증한 대회로 벵스의 축구게임 ‘EA SPORTS FIFA Online 4(피파 온라인 4)’로 진행되는 K리그 최초의 e스포츠 리그다. 31일 시작돼 2021년 1월 16일 결승전까지 진행된다. 예선은 토너먼트, 본선은 4개조 풀 리그, 결선은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열린다. 우승을 차지한 팀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제닉스 게이밍 의자, ‘EA 챔피언스컵(EACC)’ 한국 대표 선발전 예선 진출권이 주어진다. 본선과 결선 경기는 아프리카TV eK리그 공식방송국에서 독점 생중계된다.

이수진 기자

원달러환율 하락…“달러 수요 지금이 기회”

하나은행 ‘일달러 외화적금’ 인기

시중은행들이 외화예금 상품 및 이벤트를 속속 늘리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로 떨어지며 연저점을 갈아 치우는 가운데 미국 달러가 쌀 때 안전자산을 확보하려는 기업과 환차익을 노린 개인 수요를 겨냥했다. 22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올해 들어 최대치인 551억 22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선두주자는 하나은행으로 9월 출시한 ‘일달러 외화적금’이 1개월 만에 가입 계좌 수 1만 개, 가입금액 100만 달러를 돌파했다. 가입기간은 6개월로 매월 최대 1000달러까지 횡수 제한 없이 자유 납입이 가능하다. 5회까지 분할 인출할 수 있어 외화 필요 시 활용도를 높였다.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현찰수수료 없이 달러지폐로 바로 찾을 수 있고, 고객이 지정한 환율을 알려주는 환율알림 기능으로 똑똑한 자산관리

가 가능하다.

31일까지 가입 고객에게 가입 축하금 1달러를, 자동이체로 적금 납입 시 3000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30일까지 모바일뱅킹 솔(SOL)에서 ‘럭키 7 Fall’ 이벤트를 실시한다. ‘외화체인지예금’과 ‘글로벌주식More 외화예금’을 대상으로 생애 최초 가입과 1000달러 이상 원화기반 입금 등 두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7달러를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16일 원화·외화 패키지 상품인 ‘NH주거래우대외화적립예금’을 내놓았다. 기존 ‘NH주거래우대적금(원화)’ 가입 고객이 이 상품에 가입하면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가입기간은 12개월로 10달러 이상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11월 30일까지 입금·지급 거래 시 90% 환율우대를 적용한다. 김평태 NH농협은행 외환사업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금융환경의 변동성이 커지며 달러 금융상품이 주목받고 있다”고 했다. 정영욱 기자 jiy@donga.com

만지고 소통하고…이통 매장의 변신은 무죄

SKT, 홍대 거리에 ‘T팩토리’ 오픈

통신 매장이 변한다. 기존의 상품 판매 중심이 아닌 이용자들이 ‘만지며 체험하고, 즐기며 소통하는’ 문화공간을 잇따라 오픈한다. 중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를 잡기 위한 전략이다.

SK텔레콤은 31일 서울 홍대 거리에 ‘T팩토리’를 연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서비스, 상품들은 물론 보안과 미디어 등 SK 그룹 정보통신기술(ICT) 패밀리사들의 서비스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방문객은 ‘5GX 클라우즈 게임’을 대형 컨트롤러로 즐기고, 다양한 제조사의 최신 기기도 직접 만져볼 수 있다. 또 웨이브, 플루 등의 구독 서비스와 인공지능(AI) ‘누구’ 디바이스도 체험해 볼 수 있다. ‘페이커’를 비롯한 프로젝트 임단 T1의 다양한 굿즈도 갖췄다.

업계 최초 24시간 무인 구매존(T팩토리 24)도 있다. 입장(셀프체크인)부터 제품 비교, 가입신청 및 휴대전화 수령 등 개통에



홍대 거리에 위치한 ‘T팩토리’

필요한 모든 업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MZ세대를 위한 ‘힙’한 공간도 눈에 띈다. 2층에 마련한 ‘0 스테이지’에는 가로로 넓게 설치된 ‘인피니티 미러’가 있는데, 증강현실(AR) 이미지를 합성해 다양한 모습을 연출해준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다양한 사람들이 열린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에 복합문화공간 ‘일상비밀상의틈’을 선보였다. 도심에서 만나는 자연이 디자인 콘셉트다. 내부에는 MZ세대가 선호하는 카페, 서점, 포토스튜디오 브랜드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김명근 기자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임플란트 시술 시 통증·출혈 무섭다면…가수면 상태로 진행되는 ‘수면 임플란트’ 어떠세요

사람의 치아는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차된 뒤 평생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자연치아의 경우 노화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사고로 인해 소실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소실된 자리를 메우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치열이 무너지거나 저작기능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문제를 낳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과 치료로는 틀니와 브릿지, 임플란트 등이 있다. 틀니는 잇몸 본을 뜬 후 정형화된 치아 치열을 제작하는 것이며, 브릿지는 양쪽 치아를 깎아 세 치아를 한 덩어리로 제작하여 빠진 부위를 메우는 방법이다. 틀니와 브릿지의 경우 치료 기간이 짧지만,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먹기 힘든

데다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또한 틀니는 잇몸 뼈가 점진적으로 흡수되고, 브릿지는 건강한 인접치아를 깎아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반면 임플란트는 빠진 부위의 뼈 안에 식립하는 만큼 인접 치아의 손상이 없고, 자연치아와 같은 저작력을 지니게 된다. 관리만 잘한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평균 3~6개월이 소요되며 절개와 출혈, 통증 등의 부담이 따르게 된다.

이런 이유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최근에는 ‘수면 임플란트’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다. 수면 임플란트는 수면 내시경을 할 때와 같이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약물을 투여해 진행되는 수면마취 치료 방법이다.

의식하진정요법이라고도 불리는 수면 임플란트는 무의식 상태에서 진행되는 전신 마취와 달리 의식이 있는 가수면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 내내 환자 스스로 자발적 호흡을 할 수 있다. 또 의료진의 간단한 지시에도 반응할 수 있다. 특히 시술 도중에 통증을 느낄 수 없으며, 시술에 대한 기억이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술 전에는 환자의 혈압과 혈당 수치, 복용 중인 약, 질병 유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수면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는 만큼 안심하고 치료에 임할 수

있다. 또 과도한 수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등 치료가 진행되는 내내 환자를 체크하고 모니터링한다.

임플란트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주의할 것은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전체 치과 의사 중 치과 전문의는 7%이며, 그중에서도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비중은 4.6%에 그친다.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는 얼굴 및 입안의 고난이도 수술에 관해 추가로 4년의 수련 기간을 거친 만큼, 더욱 시술 경험이 풍부하다.

모란역 치과 내의특별한치과의원
박홍재 원장

